

## 마츠코병 연기 영상 지정 장면 - 소정

### S#2 자취집 [S#2 중 일부]

소정은 귀에 에어팟을 끼고 작가와 통화중이다. 책상 위에 올려진 소주병과 과자들. 집안은 널브러진 빨래들, 치우지 않은 배달용기들로 잔뜩 어질러져 있다. 이미 반쯤 취해있어 살짝 눈과 혀가 풀려있는 상태다.

**작가** (V.O.) 스읍, 너 저번에 한다는 알바는 어떻게 됐어?

**소정** 그, 잘렸어. 자꾸 지각한다고.

**작가** (V.O.) ('또냐'라는 투로) 아….

**소정** 내가 그렇게 시간 딱딱 지켜가면서 출근하고 그런 거 잘 못하잖아. 나도 언니처럼 프리랜서? 그런 거 해야되나 싶어.

**작가** (V.O.) (약간 어이없다는 듯이) 소정아 프리랜서가 시간 관리하기 더 힘들어.

**소정** 아 그런가? 맞다 그렇겠다…. (멋쩍게 웃다가 갑자기 말투가 침울해지는) 근데 그럼… 나 진짜 뭐… 하고 살지? 흐흐. 그냥 지금처럼 엄마 용돈이나 타서 쓰면서… 준내 쓰레기처럼 사는 수밖에 없나.

**작가** (V.O.) (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) 하아… 또 시작이다.

**소정** (갑자기 버튼 눌린 듯 조금은 짜늘하게) …또 시작? 그거 무슨 의미야?

**작가** (V.O.) 아냐, 아무것도.

**소정** 뭐가 아무것도 아냐. 또 시작이라매. 언니 내 얘기 듣는 거 싫어?

**작가** (V.O.) 그게 아니라 너가 자꾸…

**소정** (말을 끊고서는 조금 답답하다는 듯이) 아 거짓말 안 해도 돼. 아니 솔직히 나 같아도 나같은 새끼 얘기 들어주기 싫겠다. 맨날 방구석에 처박혀서 처먹고 자고 싸기만 하는 벌레 같은 년을 대체 누가 좋아해. 언니도 솔직히 나 준내 한심하다고 생각하잖아. 그치? 내 말이 맞지?

소정은 자기가 엄청나게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또박또박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술에 취해 객기 부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. 점점 말투가 격앙되어가는 소정.

**작가** (V.O.) 나 그런 말 한 적 없,

**소정** (다시 말을 끊는다) 나 이제 죽을라고. 죽어야겠어. 언니도 날 그렇게 생각하는데, 내가 살아있어서 좋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! 꾸역꾸역 살아있어 봤자 대체 뭘 의미가 있어? 얼른 요절해서 효도 해야겠다 씨발.

**작가** (V.O.) (하는 수 없이 어르는 듯이) 그러지 마아….

**소정** 아니 나 뭐 내가 우울해서 죽고 싶다 이게 아니라, 객관적으로 봤을 때! 나는 죽어서 없어지는 편이 세상에 이롭잖아. 아냐? 아니 그렇잖아아! 아니 그러니까 씨발 나 죽을 거라고오. 나 뒤져서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어? 그렇게 만들겠다고 이 씨바알-!